IBK경제연구소 경제금융팀 sylee@ibk.co.kr ☎ 02-729-6899

IBK경제나침반 : 글로벌 경제동향

2017.12

참!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| IBK경제연구소

목차

Ⅰ. 국가별 동향

미　국 : 양호한 고용 등 경기개선세로 기준금리 0.25%p 인상(1.25~1.50%)

유로존 :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과 물가부진에 대한 경계감이 상존

중　국 :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양국 경제교류가 개선될 전망

일　본 : 소비는 줄었지만 생산·투자·수출이 늘어 경기개선세는 지속

한　국 : 수출증가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여전히 부진

I B K 경 제 연 구 소
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

본 자료는 IBK경제연구소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비공식 자료이며, 어떤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
Ⅰ. 국가별 동향

□ 미국, 양호한 고용 등 경기개선세로 기준금리 0.25%p 인상(1.25~1.50%)

○ 11월 비농업부문 신규취업자수는 22.8만명('17.1~11월 평균 17.4만명) 증가했고, 실업률은 '00.12월(3.9%) 이후 최저치인 4.1%를 기록

○ 12월 FOMC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'1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9월보다 상향조정하고 금리인상 속도는 유지

- (경제 전망) '18년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각각 2.5%(0.4%p↑), 3.9%(0.2%p↓)로 조정
- (금리 전망) 금리인상 횟수는 기존 전망과 동일한 '18년 3회, '19년 2회를 유지
- (금융시장 반응) '18년 경제성장률을 큰 폭으로 상향조정 하면서도 금리인상은 기존 전망을 유지해 12월 FOMC회의는 완화적이었다는 평가, 시장금리는 하락하고 달러화는 약세

※ 국채금리(10년물, %) : 2.40(12.12일) → 2.35(12.13일), 달러인덱스(1973년=100) 94.1(12.12일)→ 93.5(12.13일)

분기지표	'16.Q3	Q4	'17.Q1	Q2	Q3
GDP(전년동기대비, %)	1.5	1.8	2.0	2.2	2.3

월지표	'16.11월	'17.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3.4	3.0	3.7	3.5	4.0	4.9	5.8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1.7	1.6	1.7	1.9	2.2	2.0	2.2
비농업부문 신규취업자(만명)	16.4	21.0	13.8	20.8	3.8	24.4	22.8
실업률(%)	4.6	4.4	4.3	4.4	4.2	4.1	4.1
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△0.4	2.1	1.8	1.5	1.9	2.9	3.4

□ 유로존,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과 물가부진에 대한 경계감이 상존

○ 12월 ECB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(0.0%), 예금금리(△0.4%) 모두를 동결

※ '18년부터 축소되는 채권매입 프로그램도 '18.1~9월까지 매월 300억유로 규모로 진행

- (경제성장률) '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.4%로 0.2%p 상향조정, '18년과 '19년을 각각 2.3%(0.5%p↑), 1.9%(0.4%p↑)로 전망하며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증대
- (물가) '17년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1.5%로 유지하고, '18년과 '19년도 각각 1.4%(0.2%p↑), 1.5%(유지)로 전망하며 완만한 물가상승 압력 예상

○ 3분기 경제성장률*은 독일(2.8%), 프랑스(2.2%), 이탈이아(1.7%) 등 주요국의 경기개선으로 전년동기대비 2.6% 기록

* 부문별 성장기여도(%p) : 민간소비 1.1, 정부지출 0.2, 투자 0.9, 순수출 0.3, 통계상불일치 0.1

분기지표	'16.Q3	Q4	'17.Q1	Q2	Q3
GDP(전년동기대비, %)	1.7	1.9	2.1	2.4	2.6

월지표	'16.11월	'17.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
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3.5	2.9	3.7	3.9	3.4	3.7	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2.8	3.5	2.3	2.3	4.0	0.4	
실업률(%)	9.7	9.0	9.0	9.0	8.9	8.8	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0.6	1.3	1.3	1.5	1.5	1.4	1.5

□ 중국,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양국 경제교류가 개선될 전망

○ 11월 경제지표는 소비와 수출 증가에도 철강·시멘트 등 과잉생산 산업 규제 및 환경규제 등이 강화되며 생산과 투자는 완만한 둔화세 지속

- (소비) 광군제 영향 등으로 의류·화장품·통신기기 등 소매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
- (수출) 국가별로는 미국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, 품목별로는 기계·전기제품(15.5%) 수출 등이 개선되며 12.3% 증가

※ 주요국 수출(전년동월대비, %) : 미국 15.2, EU 14.0, ASEAN 20.2, 한국 14.5

○ 한중 정상회담(12.14일)에서 두 정상은 경제 교류·협력 재개, 안보 4대원칙 합의, 정상간 핫라인 구축을 통한 소통강화 등에 합의하며 양국관계 발전 기대

-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, 투자협력기금 설치, 한중FTA 서비스·투자 후속협상 개시, 지방정부간 협력 증진, 4차 산업혁명관련 협력사업 추진 등

분기지표	'16.Q3	Q4	'17.Q1	Q2	Q3
GDP(전년동기대비, %)	6.7	6.8	6.9	6.9	6.8

월지표	'16.11월	'17.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
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6.2	7.6	6.4	6.0	6.6	6.2	6.1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10.8	11.0	10.4	10.1	10.3	10.0	10.2
고정자산투자(전년동월대비, %)	8.3	8.6	8.3	7.8	7.5	7.3	7.2
수출(전년동월대비, %)	0.1	11.3	7.2	5.5	8.1	6.9	12.3
70개도시신규주택가격(전년동월대비, %)	10.8	9.6	9.3	8.2	6.5	5.7	-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2.3	1.5	1.4	1.8	1.6	1.9	1.7

□ 일본, 소비는 줄었지만 생산·투자·수출이 늘어 경기개선세는 지속

○ 3분기 경제성장률은 엔화약세가 기업이익에 긍정적인 이익을 주면서 전년동기대비 1.7%(속보치)→2.1%, 전기대비 0.3%(속보치)→0.6%로 상향조정

※ 3분기 경제성장률(속보치→확정치, %) : 전년동기대비 1.7%→2.1%, 전기대비 0.3%→0.6%

※ 설비투자 증가율(전년동기대비, %) : △0.2('16.Q3) → 1.7(Q4) → 1.8('17.Q1) → 2.9(Q2) → 3.8(Q3)

○ 10월 소비는 편의점 판매(0.6%)가 늘었으나, 백화점·슈퍼 등 대형 소매점 판매(0.5%)가 줄어 12개월만에 감소하며 △0.2%를 기록

분기지표	'16.Q3	Q4	'17.Q1	Q2	Q3
GDP(전년동기대비, %)	1.0	1.6	1.5	1.4	1.7

월지표	'16.10월	'17.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
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4.5	6.5	5.5	4.7	5.3	2.5	5.9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△2.2	2.1	2.2	1.8	1.8	2.3	△0.2
수출(전년동월대비, %)	△10.3	14.9	9.7	13.4	18.1	14.1	14.0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△0.5	0.3	0.4	0.4	0.5	0.7	0.8

□ 국내, 수출증가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여전히 부진

○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9.5% 증가한 496억달러(13개월 연속 증가) 기록

- (품목별) 13대 주력품목 중 9개 품목이 증가, 고부가가치 품목(SSD 등) 수출이 크게 증가

※ 품목별 : 반도체(68.5%), 석유제품(39.1%), 유선통신기기(14.1%), 철강제품(7.7%), SSD(38.2%)

- (지역별) 중국으로의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, 대부분의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

※ 지역별 : 중국(20.3%), 미국(11.4%), 일본(10.4%), EU(2.8%), 베트남(46.1%)

○ 11월 취업자수는 제조업부문의 고용은 개선되었으나, 건설업·청년고용 부진이 지속되며 25.3만명 증가에 그침

- 제조업은 수출·생산 증가세 지속으로 4.6만명 증가하며 회복세가 확대되었고, 건설업은 기상영향 등으로 임시·일용직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

- 청년실업률은 선호 일자리부족 등의 취업애로가 지속되며 11월 기준 최고 수준인 9.2%을 기록했고,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률도 21.4%로 여전히 높은 수준

○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함(12.13일)에 따라, 한미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 부상

※ 11월 외국인 투자는 주식 1.86조원 순매수, 채권 1.56조원을 순매도해 총 2,980억원 순유입

- 금리역전에 따른 국내영향은 연준 금리 인상의 성격에 의존(공세적 : 부정적, 신중 : 긍정적)

· (1차 역전기, 공세적) 차입 회수와 외국인 채권매도로 자본유출 → 주가급락, 환율상승(금리급락)

· (2차 역전기, 신중) 외국인 주식매도에도 자금유입 견조 → 주가급등, 환율하락(금리상승)

[한미 기준금리 역전기 국내 영향]

	시작	종료	외국인주식	외국인채권	대외차입	KOSPI	원/달러	시장금리
1차 역전기	'99.6.30	'01.3.20	+14.1조원	△31억달러	△173억달러	△40.8%	+12.0%	△157bp
2차 역전기	'05.8.9	'07.9.18	△33.3조원	+16조원	+698억달러	+69.2%	△8.4%	+96bp

분기지표	'16.Q3	Q4	'17.Q1	Q2	Q3
GDP(전기대비, %)	0.5	0.5	1.1	0.6	1.4
GDP(전년동기대비, %)	2.6	2.4	2.9	2.7	3.6

월지표		'16.10월	11월	'17.7월	8월	9월	10월	11월
제조업	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△1.2	5.6	△0.4	2.5	8.7	△6.2	
	출하(전년동월대비, %)	△2.1	4.5	0.1	2.4	8.6	△6.7	
	재고(전년동월대비, %)	△6.2	△6.5	1.7	3.2	2.0	5.9	
	평균가동률(%)	70.9	73.7	73.1	72.0	71.9	71.3	
서비스업 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	2.0	2.6	2.3	2.1	5.3	△0.2	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	2.5	3.2	3.6	0.9	8.4	△0.2	
투자	설비(전년동월대비, %)	△3.3	10.2	24.9	12.4	24.9	△3.4	
	건설기성(전년동월대비, %)	20.2	28.9	17.4	13.9	23.9	3.5	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	1.5	1.5	2.2	2.6	2.1	1.8	1.3
아파트 매매가격(서울, pt)		103.4	104.1	106.6	107.7	107.8	108.3	109.0
실업률(%)		3.4	3.1	3.5	3.6	3.4	3.2	3.2
수출(전년동월대비, %)		△3.2	2.3	19.5	17.4	35.0	7.2	9.5
수입(전년동월대비, %)		△4.7	9.4	15.6	15.4	22.6	7.9	12.7